

우리는 행복할꺼야 ...

내가 만약 모든 장애물들을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줄 안다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



목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민감함을 지니는 것.



어땠나요?

처음에는, 잘 맞이해 주기 위한 단계, 즉 각자가
산 경험담과 어려움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대하다는
의미는 각자가 마음 편안히 환영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지난 마지막
모임에서의 목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어땠나요?



모임을 여는 활동

목표가 있는 행동

목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준비물: 종이와 펜

방법: 각 그룹을 4, 5명의 참여자로 나눕니다. 각 그룹은
종이에 3개의 동심원(같은 중심에 반지름이 다른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점을 표시합니다. (가능한 다른
색깔들로) 제일 안쪽에 있는 원에는 “집/ 가족 안에서”
두번째 원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세번째 원에는 “내가
속한 도시 안에서”라고 제목을 붙이도록 합니다. 각
원에 따라서 그룹 구성원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비추어 보고 대화해보도록 합니다:

- 이 환경(장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나요?
-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나요?
-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 보아요!

지난 해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네 자녀로 이루어진 아주 가난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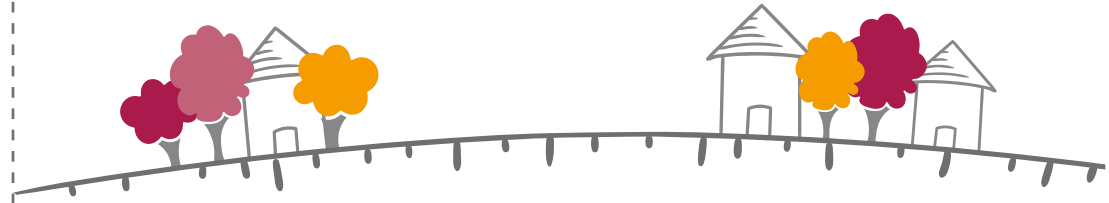
우리는 그들이 사는 아주 작은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단지 식탁과 의자조차도 없는 방 하나 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욕실도 아주 나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2층 침대 에서 함께 잠을 자고, 부엌에 있는 냉장고는 비어 있었으며, 하루에 단 한 두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이 좀더 존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은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지들 사이에서 음식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더 큰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우리 모두 그 집을 청소하고 새로 칠을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집에 필요한 가구를 놓



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선물이 도착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가족이 이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집을 보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백 배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즉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식생활을 가능한 잘 할 수 있도록 음식 준비에 신경을 써주고, 아이들의 공부를 돕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 것은 연대 프로젝트의 속해 있기 때문에 작은 봉급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남편의 경비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다른 이를 도울 때, 특별히 예수님께 나의 '네'를 드릴 때, 삶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확신을 지니게 하였습니다.

(S. 코스타리카)

우리는 행복할꺼야
내가 만약 모든 장애물을 없애면
내가 만약 이 땅의 모든 악을 없애면
내가 만약 한 나라를 없애면
내가 만약 한 나라를 없애면



이렇게 살아보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반이 장애 아동시설에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머니께 이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아이들이 마치 너와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가져가고, 작은 공연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와 나쁜 늑대의 동화를 택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늑대 역할을 하는 것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서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트셨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 어

린이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자고 초대하고, 그런 내가 유일한 사람일 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친구들은 나처럼 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그들에게 이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아주 가끔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온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다시 말해 이번에 우리가 그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의 친구들은 이 말을 이해했고,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오후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반 친구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뻐하였습니다.

(M.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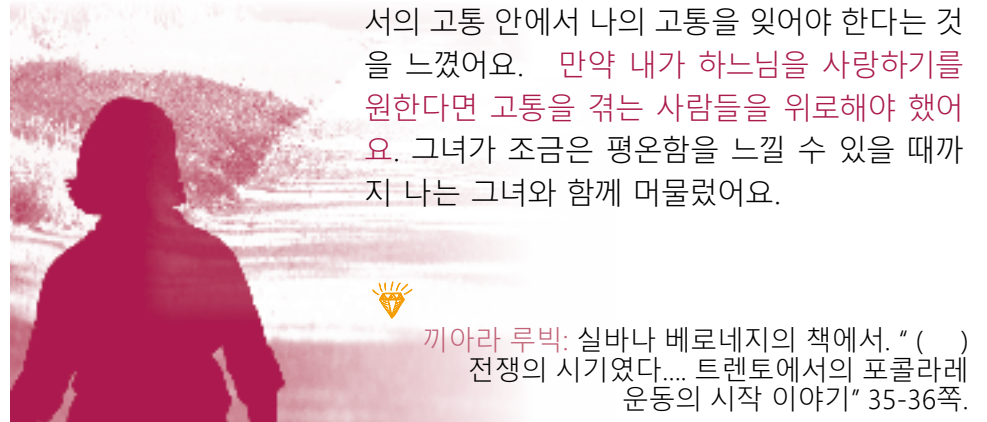
깊이 있게

1944년 5월 13일의 끼아라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 가족과 살던 집을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린 공습으로 인해, 끼아라의 부모님은 피난을 가야 했고, 끼아라는 부모님께 트렌토에 남게 해달라고 청해야 했어요. 부모님과 자매들에게 인사하고 난 후, 도시에 돌아간 끼아라는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월 3일, 눈물이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 눈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 분께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는지 보지 않은 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며 나의 얼굴에 대고 크게 소리쳤어요. “네 명이나 죽었어요, 아가씨!”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니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딱딱하게 굳은 손아귀 같았고, 단지 미친 사람이나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같았어요. “네 명이나 죽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녀가 소리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순간에, 치베짜노 방향으로 간, 헤어진 나의 네 식구가 떠올랐어요. 나에게 네 명은 살아 있어요. 나탈리아, 그곳에서 나는 그 여자 안에서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인류 안에서의 고통 안에서 나의 고통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했어요. 그녀가 조금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녀와 함께 머물렀어요.



끼아라 루빅: 실바나 베로네지의 책에서. “() 전쟁의 시기였다.... 트렌토에서의 포콜라레 운동의 시작 이야기” 35-36쪽.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 받을 것이다.” (마태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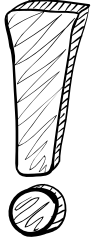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75-76절.

세상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제안합니다: 유희, 쾌락, 산만, 오락은 우리에게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가족이나 그 주변에 고통과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체 합니다. 세상은 눈물을 흘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르는 체 하고 그것을 덮으며 숨기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십자가가 부족할 수 없는 현실을 감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는데 사용합니다.

고통으로 아파하고 마음 속의 눈물을 흘리며 현실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인간은 삶과 진정한 행복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고통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고 그의 괴로움을 이



해하고 그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타인은 그 사람의 '살'의 일부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이 지닌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사도의 권고를 진정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15). 다른 사람과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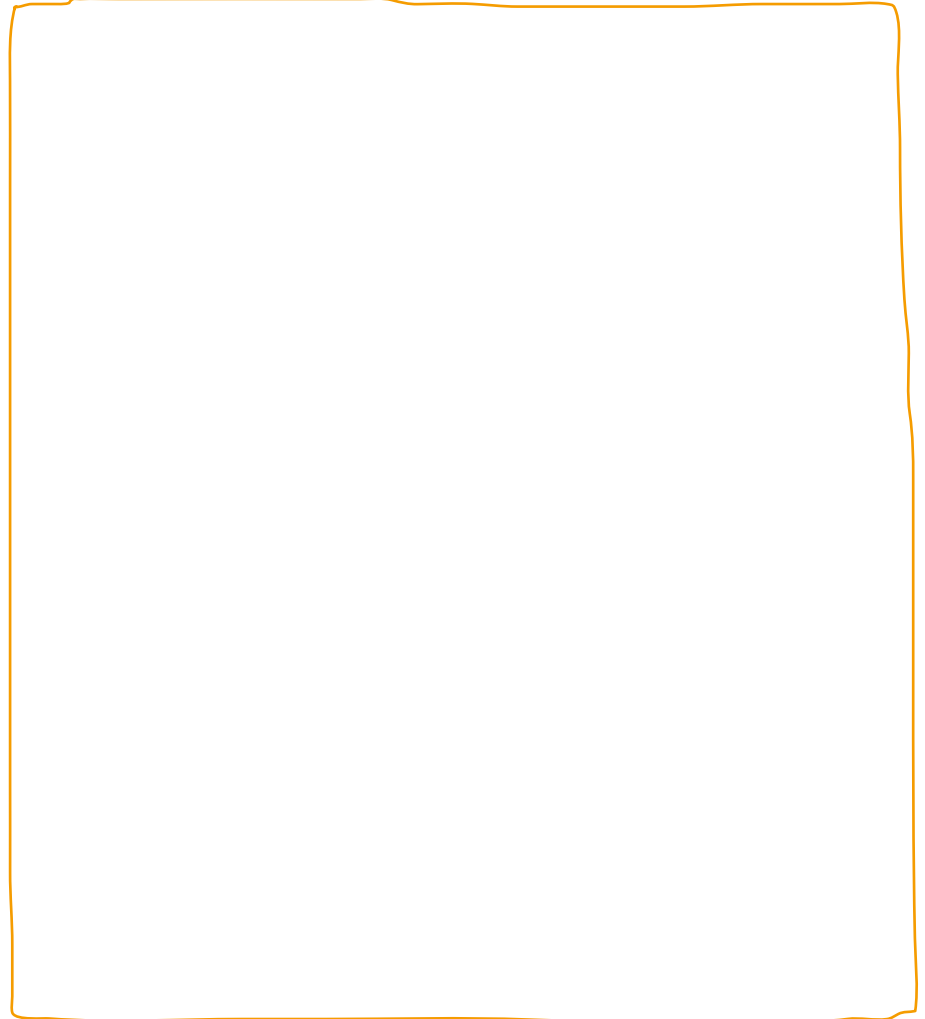
한 번 시도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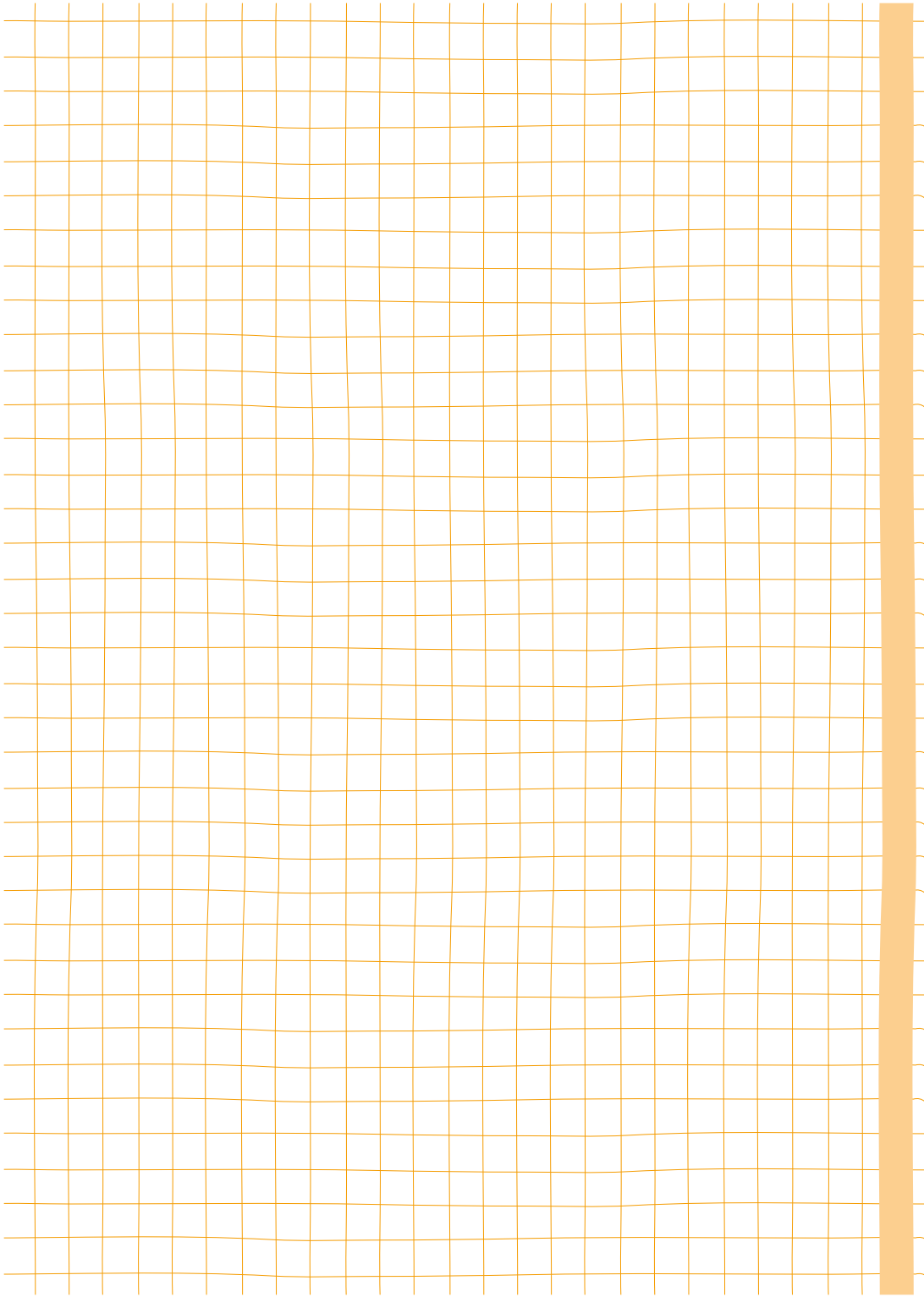
1.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기 위해 3젠 보조자들과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의 보조자들과 함께 활동과 장소를 정하여 준비해봅시다. 제로 헝거와 같은 이미 목표가 정해진 프로젝트들에 우리의 힘을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 우리 사이에 **물질적인 나눔(재산의 공유)**을 정기적으로 사는 것을 제안하여 봅시다.
3.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결실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험을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나누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틴쓰" 잡지사의 편집부(teens@cittanuova.it)나 세계 3젠 본부 (centrogen3f@focolare.org)를 통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호자 공간



모임 후 평가하기

- 어떤 분위기 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열린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의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제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모임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
- 모든 사업회와 함께 하는 "Pathway to fraternity"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나눔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3젠,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구체적으로 자신을 나누는 기회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었나요? ("2030제로 형거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